

겨울 지나 봄, 그렇게 스무 번

글. 장해완 CJB 기술제작팀

청주 우암산 송신소 안테나

2019년 4월 20일, 이날은 CJB 방송기술인협회 창립 20주년 기념일이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 1997년 CJB는 개국했고, 두 해 지난 1999년 4월 20일 CJB 방송기술인협회를 창립했다. 올해로 꼭 스무 해, 몸담고 살아온 청년의 얼굴엔 어느덧 세월이 묻었다.

20년의 세월이 마치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것처럼 가깝기만 한데, 떠올려본 기억들은 깨어진 유리 파편들처럼 흩어져 쉽사리 맞춰지지 않는다. 매 순간 앞에 놓인 큰일을 치르며 뜨거운 시절을 보냈던……, 그리고 앞으로도 난제를 헤쳐나갈 동료들과 가슴 한편에 맴도는 조각난 옛 기억들을 나누고자 몇 자 적어 본다.

나는 재수가 좋다.

CJB 방송기술인협회는 서울 중심의 방송사가 주를 이루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지역방송의 이름을 내걸고 뛰어난 선두 주자다. 1997년은 쓴살같이 흘러갔다. 2차 민방이라는 타이틀을 짊어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개국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은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당시를 기억하는 선배들은 ‘평생 받을 스트레스를 한순간 받으며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고, 온몸을 불살랐던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시간이었다’라고 회상했다.

1998년에는 회사가 안정을 찾기도 전에 구조조정, 파업 등으로 창사의 꿈은 희석됐고, 구성원들은 절망의 나락에서 허덕였다. 우여곡절 속에 2년이 지난 1999년, 방송기술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쳐 ‘CJB 방송기술인협회’를 창립했다.

똘똘 뭉친 구성원들은 희로애락, 생사고락을 함께 헤쳐 왔다. 나 역시도 모든 일을 경험이라 여기며 즐겁게 살아왔다. 1999년 그날 내가 거기에 있었던 것도, 2019년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나에게는

1999년,
방송기술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뭉쳐
‘CJB 방송기술인협회’를
창립함



큰 행운이다. 행운은 아무에게나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엄청나게 재수가 좋다.

작은 일도 협업의 기술이 필요하다.

작은 규모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수십 명의 제작 인력이 필요하다. 제작에 참여하는 종사자는 제작진, 출연진, 기술진 그룹으로 크게 나눈다. 제작진은 기획부터 창작까지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인력을 말하고, 출연자는 프로그램 진행자부터 리포터, 초대 손님, 방청객까지 화면에 보이는 모두를 지칭한다. 기술진은 방송 제작에 사용되는 방송기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전문 기술 분야로 구성돼 있다. 그중에서도 기술적 제작 업무를 총괄하는 기술감독을 중심으로 음향, 영상, 조명감독 등이 포함된다. 기술진은 방송국 내에서 제작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맡는다. 짜인 시간 일정에 따라 여러 프로그램에 돌아가며 참여한다.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유기적인 스태프 운영이 필요하다. 여타 조직과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방송 스태프를 종종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 오케스트라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모든 그룹이 잘 어우러져야 박수받는 작품이 된다. 어느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관객이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방송도 성공적인 제작을 위해 부분적인 기능 및 역할이 균형과 조화가 잘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실수들을 다른 구성원들이 재빠르게 보완할 수 있다. 그 근본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신뢰를 만들기 위해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내가 삶의 터전으로 일구는 CJB는 지역방송이다. 일부는 지방방송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콤한 말은 아니다. 얼마 전 방송되었던 예능 프로그램 상황이다. 메인 MC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 다른 출연자들끼리 속닥이는 상황에서 ‘지역 방송 중’이라고 자막 처리를 했다. 지방방송 대신에 지역방송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묘사할 때 여전히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고 불쾌함을 느꼈다.

우리의 무의식중에는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라는 인식이 배어 있다. 모든 관심과 생활 구역이 서울로 몰리는 현실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CJB가 태동했던 시절에 시청자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은 ‘서울방송 자르지 말라’는 말이다.

서울방송을 보기 위해 ‘지방방송은 폭파해야 된다’는 과격한 표현도 있었다. 시청자는 서울에서 내보내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지역방송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부끄러운 단면이다. 하지만 시청자들의 바람과 달리 지역 제도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지역방송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문제 삼는다. 지역방송에는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 여론 형성이라는 목표가 있다면서…….

그 사이에 지역방송기술인들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바깥으로는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안으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은연중에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참고 견디고 지역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좋은 방송을 보여주고 소통하려고 더 노력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의 신뢰는 쌓여왔다.

“지역방송국은 극한 삶의 현장이다.”

우리는 CJB를 만들어낸 주역이다. 소수의 인력으로 방송 제작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발로 뛰는 역군이다. CJB는 청주시 우암산에 송신소를 건립했다. 수풀 우거진 산속에 터를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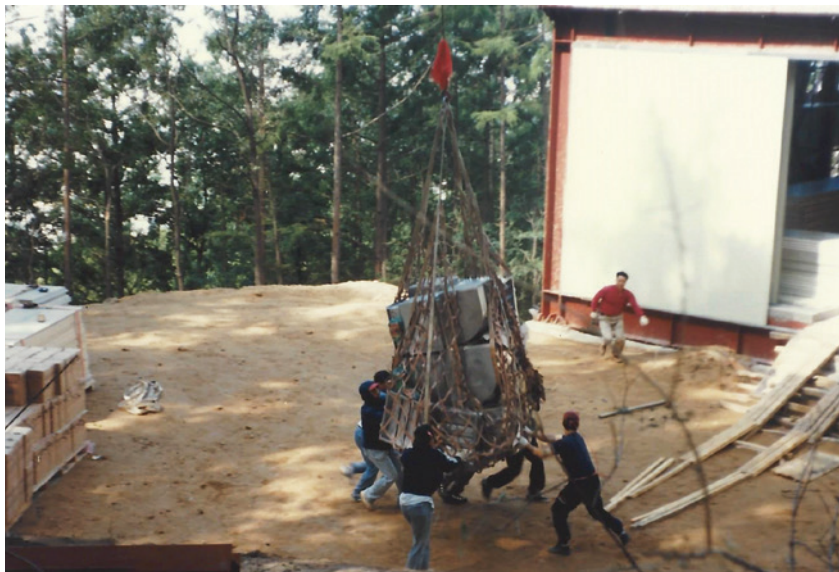
고 나무를 베어냈다. 송신소를 짓기 위한 지점까지 길은 없었다.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송신소가 세워졌다.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며 함께 땀 흘린 나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암산처럼 길이 없는 산악지형에서 송·중계소 건설에 필요한 공사 자재를 운반할 때 삭도나 모노레일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CJB는 대부분 헬기를 이용했다. 헬기를 이용한 운송 방법은 부피가 크고 무거워 내부 적재가 불가능하고, 헬기 착륙이 불가능한 장소로 공수하기 때문에 외부에 로프를 이용해 화물을 인양하는 형태로 옮긴다. 우암산으로 굴착기를 공수하기 위해 헬기에 매달기 좋게 분해하고 재조립했다. 건축 공사에 필수 요소인 레미콘도 소방헬기가 물 나르듯 한 통씩 담아 수십 번을 날라 부었다. 특히 고가의 방송기기를 공수할 때는 하역 작업이 승부처였다.

영화에서 보면 헬기에서 내리거나 탈 때 몸을 숙이고 낮은 자세로 움직이는 걸 봤을 것이다. 작업장 주변에는 헬기로 인해 위에서 부는 강한 바람은 평범하게 서 있는 것조차 힘겹게 만들었다. 그 바람이 바닥을 맞고 다시 몰아칠 때는 강한 모래바람이 되어 얼굴을 가려냈다. 따가운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눈을 공격하는 티끌을 맨눈으로 버티기엔 작업자를 더욱 위험으로 몰아갔다. 헬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는 얼마나 고약한지 덩달아 작업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도 질서를 잡아야 한다. 여러 명이 힘을 줘도 한 줄에 매달린 채 흔들리는 방송기기를 안전하게 내려놓는 작업은 작업자가 다칠 수 있는 극한 작업이었다.

2019년, 22년이 지난 지금 방송환경은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극한 상황이다. 방송이 디지털로 전환되며 변화는 내부에 그치지 않았다.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어느 곳에서나 활용이 가능해졌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집하기 위해 고가의 방송 장비가 없어도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스마트폰은 누구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었다.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는 방송 대신 개인 미디어, TV 대신 스마트기기를 보편화시키며 모든 방송사를 인터넷 속으로 빨아들였다.

지역방송에는 생명줄처럼 지켜왔던 권역별 전송이라는 울타리마저 허물어지고 있다. 1인 미디어로 이동한 시청자는 좀체 지상파로 돌아오지 않는다. 시청률은 바닥을 치고 광



1997년 9월, CJB 우암산 송신소 공사 현장에서 헬기로 운반된 방송 장비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리는 장면.

봄 지나 다시 봄,
나는 스물한 번째 봄이 오는 길 위를 걷는다.



고주는 떠나갔다. 그동안 별일 없이 지낼 것으로 믿었던 서울의 방송사들도 죽을 지경이라 입을 모은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은 지역방송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지역 시청자는 이제 무엇을 보여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서울의 방송을 자르든 말든 관심도 없다. 우리는 정말 웃기고 슬픈 현실을 마주하며 생존과 공익이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봄 지나 다시 봄

CJB 방송기술인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했다. 지난 20년의 행적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CJB 방송기술인협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출발점으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어느 누구도 선뜻 반기지 않았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내세에게 없는데 무엇을 쓸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남(시청자)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보여주는 일을 천직으로 삼은 우리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엮기엔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나 해내고 싶었다.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고스란히 드러낸 지난 발자취가 후배들에겐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모든 기억을 모아 솔직하고 담백하게 만들었다. 이곳에 담긴 사진과 글은 CJB의 역사이고 방송기술인의 숨결이 곳곳에 숨어든 자서전이다. 이를 제작하며 쏟아부은 열정, 일하며 스스로 느끼는 재미, 할 수 있다는 도전이 블로그를 세상 밖으로 밀어 올렸다.

행복은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다고 한다. 이 길 끝에서 만나게 될 나의 회상이 기왕이면 즐거웠던 장면들로 채워지길 바란다. 나는 삽으로 흙을 퍼서 산으로 옮기겠다는 우공을 닮고 싶다. 방송 현장에는 아직도 우공의 심정으로 묵묵히 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과 함께 출연자를 돋보이게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는 나는 방송기술인이다.

봄 지나 다시 봄, 나는 스물한 번째 봄이 오는 길 위를 걷는다.



2017년 9월, CJB 연주소 MW 시스템 교체 공사 완료

CJB 방송기술인협회 블로그, 'CJB와 방송 기술' (blog.naver.com/cjbeng)

